

‘역대 최대’ 반영 불구 AI·미래차 대책 비상

 2026년 광주·전남 예산전쟁 <상>광주국비예산 국회 심의 전망

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. 이재명 정부의 '확장 재정' 기조 속에서 광주시는 전년 대비 10.1% (3천372억원) 증액된 3조3천616억원이라는 '사상 최대' 국비를 정부 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. 하지만 '역대 최대'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'비상'이다. 이 역설적인 상황은 2개의 전선에서 비롯된다. 하나가 정부안에 반영된 3조3천616억 원원을 방어해야 하는 '수성(守城)전' 이라면, 다른 하나는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삭감된 핵심 사업을 무릅쓰기야 하는 '공성(攻城)전' 이다. ▶ 관련기사 2·3·4면

‘수성전’·‘공성전’ 맞물려 예의주시

R&D 확대 등 '거시적 환경' 유리

‘AI 예산은 국가 전략 예산’ 명분

AX실증밸리·지하철 2호선 지켜야

기재부 설득 데이터·논리 치밀해야

◆2025년의 실패…절박함으로 바뀐 2026년

광주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뼈아픈 실패를 맛봤다. 당시 광주시는 AI 2단계(AX 실증 벨리), AI 영계도 등 핵심 사업 중점을 요청했으나 '중요성은 감응예산안 일괄 통과'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단 한 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.

반면, 당시 전남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1천 574억원을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. 이에 따라 2006년 예산 정국은 광주에게 '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'는 절박함이 있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.

다행히 거시적 환경은 광주에 유리하다. 정부가 R&D 예산을 35조3천억원 (19.3% 증액) 규모로 확대하며 AI·첨단 분야 투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는 광주시가 사활을 건 AI 2단계 사업이 단 순한 '지역 예산'이 아닌 '국가 전략 예산'임을 강조할 강력한 명분이 된다.

또한 국민의힘 등 야당이 '퍼주기'라 비판하는 대상이 '지역사랑상품권', '소상공인 바우처' 등 현금성 지원에 집중된 점도 기화다. 광주가 요구하는 AI 밸리(R&D), 광역철도(SOC) 등은 야당의 반발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어 '미래성장 동력'을 위한 생산성 투자'라는 차별화된 논리 구사가 가능하다.

◇‘미래 산업’ 사수와 ‘발걸치기’

무엇보다 오는 17일부터 가동될 예산안조정 소위원회(예산소위)는 실질적 '결전의 장'이다. 예산소위에서의 첫 번째 전략은 방어 전략이다.

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삭감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업으로 예타 면제가 확정된 AI2



노랗게 물든 가을 겨울로 들어서는 절기인 입동(立冬·지난 7일)이 이를 지난 9일 나주시 남평읍 은행나무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. /김애리 기자·조영권 인턴기자

단계 사업(240억원)과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(26억8천만원) 사업을 꼽고 있다.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(5억원)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비록 소액이지만 사업의 '첫 삽'을 의미하기에 사수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한다.

이 밖에 도시철도 2호선(1천665억원), 호남고속도로 확장(238억원)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도 핵심 방어 대상이다.

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정부안에 미반영된 3대 신규 사업 등을 ‘꼭’ 짚어 부활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. ▶2면에 계속 /김진수기자

호남선 KTX 10년 만에 첫 증편

용산-송정 'KTX 산천' 日 2회 늘려

17일부터 시행...정준호 “노력 결실”

호남선 KTX가 오는 17일부터 증편된다.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첫 증편으로 광주·전남 지역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.

9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(광주 북구갑)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용산-익산 구간에서 운행 중인 KTX-산천 4회 가운데 2회

(주중·주말 포함)를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조정안을 확정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. 현재 용산-익산(서대전 경유) 구간에는 상행 2회, 하행 2회 등 총 4회 KTX-신천이 운행되고 있다.

이중 일부 열차는 운행 후 익산역에서 회차 대기 또는 차량기지 입출고를 위한 이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이 회송 시간을 영업 운행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증편 효과를 낼 방침이다.

조정안에 따르면 하행 485열차는 용산역을 오후 9시09분 출발해 기존 익산에서 종착하던 것

을 광주송정역까지 연장해 오후 11시44분 도착하게 된다. 상행 474열차는 종착역을 익산에서 광주송정으로 변경해 오전 5시52분 광주송정을 출발, 행선까지 운행한다.

이와 관련, 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“호남선 KTX가 2015년 이후 최초로 증편된다”며 “호남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차근차근 현실이 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이번 증편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호남권 교통 접근성 향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. 광주·전남 지역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,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
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구청장,

광주시의회·광산구의회 의장 등은 지난 9월 광주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선 KTX 증편 운행을 촉구한 바 있다.

한편, 호남선 증편 운행 승차권 발매는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. /변은진 기자

Today

부동산 경기 침체...공인중개사 지원 ↓ 6면

멧돼지 퇴치 오인 사격또 사망사고 6면

‘막오른 錢의 전쟁’...KIA, 큰손될까? 16면

★
새로운 것이 빛나는
기획도시 **광주**

GICON WEEK



2025 GICON WEEK

TECH for Culture & Innovation

기술로 성장하는 광주 미래산업

기간 2025. 11. 20. (목) ~ 11. 21. (금) 장소 광주실감콘텐츠큐브(GCC), 광주CGI센터



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
GWANGJU INFORMATION & CONTENT AGENCY

	20	21
주요 프로그램	· 2025 광주 디지털혁신 포럼 · 산학공동 RISE 성장협력 포럼 · 글로벌실감기술세미나 · 기획창작스튜디오 IR 데모데이 · 2025 광주콘텐츠코리아랩 G.Showcase · 광주온에어스테이션 성과공유회	· 투자진흥지구 팝업컴퍼니 프로그램 ·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 · 광주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상담회 · 2025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호남권 성과공유회
전시 체험	· 2025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호남권 성과전시 · 팝업컴퍼니 성과 전시 ·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·실증 지원사업 성과 전시 ·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(광주) 사업 홍보 전시 · 오감만족 PLAY ZONE · 시네라이브러리 특별영화 상영전	
	· 글로벌실감기술세미나 시설 투어 · 2025 광주콘텐츠코리아랩 G.Showcase · 위치스 PLAY ZONE	GICON WEEK